한국인의 통일인식 2007~2015

: 세대별 격차와 세대내 분화*

김병조 (국방대학교)

국문요약

세대를 구분하여 한국인 통일의식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세대 구분은 청소년 시기를 중시하는 만하임의 주장을 따랐다. 청소년 시기 경험한 한국사회 중요한 사건과 남북관계를 고려해서, 세대를 체제경쟁세대, 민주민족통일세대, 탈냉전통일세대, 신자유주의통일세대로 구분하였다.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주최한 심포지엄『통일의식의 분화와 역동성: 2015 통일의식조사』(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2015년 9월 11일)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가장 크게 수정한 점은 세대명칭을 일부 변경한 것이다. 당시에는 세대를 '체제경쟁세대', '민주화통일세대', '탈냉전통일세대', '통일준비세대'로 구분했었다. 이 중 '민주화통일세대'는 민족주의 성향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민주민족통일세대'로 바꾸었고, 통일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한다는 의미에서 작명한 '통일준비세대'는 의미전달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신자유주의통일세대'라는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였다. 또한 논문 심사과정에서 심사자들은 청소년기를 기준으로 구분한 세대구분이 통일인식 형성을 지나치게 단순화한다는 점을 지적해주었다. 개인에 따라서는 청소년기가 아니라 생애의 다른 시기의 경험이 현재와 같은 통일인식을 갖게 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이며, 청소년기 경험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현재의 통일인식은 그 이후 현재까지의 경험이 결부되어 형성되기 때문이다. 맞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 논문은 의식형성에 있어서 청소년기 경험의 영향력과 청소년기 이후 경험을 영향력을 구분하는 추가분석을 시도하지 못하였다. 그와 같은 분석을 하려면 생애사 관점이 포함된 새로운 조사 자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부분은 논문의 한계로 남기고 추후 연구를 기대해 본다. 세대명칭 변경을 포함하여 논문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 3인의 익명심사자께 감사드린다.

분석결과 세대별로 통일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이 세대별로 미치는 효과가 다르다는 점을 분석하였다. 한편, 통일인식은 세대효과 뿐만 아니라 정부의 통일정책과 해당 시기 남북관계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고하려면 세대별로 적합한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남북관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세대를 단일집단으로 간주하는 것은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한다. 따라서 통일인식의 세대내 분화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현실에서는 세대별 격차 현상과 세대내 분화 현상이 통일인식 속에 혼재되어 나타난다. 세대격차는 추상적인 통일인식에 명확하게 남아있으며, 구체적인 수준의 통일인식에서는 세대내 분화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주제어: 통일인식, 세대격차, 세대내 분화.

Ⅰ. 머리말

올해 2015년은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그 기간 동안 한국사회는 경제적으로 산업화, 정치적으로 민주화에 성공하여 '한강의 기적'으로까지 언급되는 세계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사회변동을 이루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눈부신 성공에도 불구하고 남북 '분단' 상황을 크게 개선시키지는 못하였다. 남북한 간에는 군사적으로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단순화시키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한국인을 둘러싼 환경은 크게 바뀌었는데, 남북분단 상황은 근본적인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분단 상황을 일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이 상태가 정상적이라거나 바람직하다고 평가하지는 않는다. 대신 통일을 노래하고, 통일에 대해 논의하며, 통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통일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또한 통일을 위해 어떤 실천을 하고 있고, 정부 통일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등 조금 구체적인 수준에서 통일인식을 알아보면 개인별로 편차가 큼을 알게 된다. 그리고 한국의 통일 상대자인 북한이나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이나 관심 역시 매우 다르다. 정부대북정책에 대한 찬반을 둘러싸고 분출되는 '남남갈등'은 우리 국민 내부에 통일인식 격차가 크게 존재함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첫머리에서 한국사회가 짧은 기간 동안 급격한 사회변동을 경험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이는 생활세계가 크게 다른 여러 세대가 동시대에 함께 살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사회는 전통과 근대 그리고 탈근대가 공존하는 사회라는 분석이 이를 웅변해 준다. 이에 이 글은 '세대(generation)'에 초점을 맞추어 통일인식을 분석하고자 한다.[1)]

통일인식의 세대별 차이를 분석하는 것은 한국인 통일의식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는 학문적 관심과 더불어 정부 통일정책의 효과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정책적 관심에서 비롯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연초에 '통일대박론'을 제시하고, 7월에는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통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세대별로 통일인식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정책을 추진할 때, 정책 효과가 보다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구체적으로 통일필요성과 통일대박론, 통일에 대한 입장, 북한에 대한 인식 등에서 세대별 인식 격차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

1) 세대를 구분하는 작업은 연구자의 임의성이 불가피하게 개입하고 단순화의 위험부담을 갖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고 의미 있는 작업이다. 박재흥, "세대계승과 갈등: 사회문화적 변동맥락에서," 한국사회학회 편, 『대한민국 60년의 사회변동』(서울: 인간사랑, 2009), p.370.

한편, 세대별로 통일인식을 비교하는 것과 함께 세대내 존재하는 통일인식의 분화정도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2] 같은 세대라 할지라도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통일인식이 다를 것이 예상된다. 통일인식과 관련해서 세대를 단일집단으로 간주하는 것은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 것이다. 통일정책 추진 면에서도 세대 내부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세대별 통일정책을 추진하면, 정책 효과를 크게 얻지 못할 것이다. 세대내 분화의 정도에 따라 다양성, 강도, 속도 등을 고려해서 통일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세대 내 통일의식의 분화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통일의식 유형[3]을 구분하고, 세대별로 통일의식 유형 구성이 다르고, 세대 내에서 통일의식 유형별로 북한 및 대북정책 관련 인식 분화가 존재한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2007년도에서 2015년까지 매년 실시한『통일의식조사』원 자료를 활용하였다.[4] 이 조사는 패널조사가 아니지만, 조사년도마다 매년 1년씩 다른 동시기 출생 집단(birth cohort)을 구성하여 분석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세대별 인식격차와 세대내 인식분화를 분석하려면, 세대를 구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분석에 앞서 세대를 정의하고, 통일과 남북관계에 초점을 맞춘 세대구분(이하 '통일세대')을 제안하였다.[5] 이어서

---

2) 세대내 분화는 세대별 격차와 동등한 정도로 중요한 분석주제이다. 하지만 이 논문은 통일인식에서 세대 격차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1차적 목적을 두었다. 세대내 분화를 검토하는 것은 세대 격차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균형된 분석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기 위해 보완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3장과 4장 간에 균형이 맞지 않게 되었다.

3) 통일의식 유형은 통일추진형, 통일소극형, 통일방임형으로 구분했다.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4장 1절 '통일의식유형의 세대별 분포'를 참조.

4) 구체적인 조사방법과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박명규 외,『2015 통일의식조사』(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5 근간). 또한 원 자료를 활용하게 해 준 통일평화연구원에 감사드린다.

세대별 통일인식의 격차를 분석하고, 다음에 같은 세대 내에서 통일인식에 분화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 통일의식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맺음말에서는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분석에서 도출할 수 있었던 통일정책에의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세대의 정의와 통일세대 구분

통상 한국에서 20대, 30대, 40대 등 연령구분을 세대로 간주하고 분석한다. 그러나 세대는 동일 연령집단을 넘어서는 개념이다. 이 글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문화권에서 태어나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는, 그에 따라 유사한 의식과 행위양식을 갖는 동시기 출생 집단(birth cohort)을 세대로 정의하고자 한다.[6] 세대를 이상과 같이 정의하면 세대구분은 이질적인 역사적 경험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특정 역사적 경험은 그 시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 해당되기 때문에 역사적 경험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기준으로 세대를 구분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쉽지 않다. 역사적 경험을 넘어서는 다른 분류기준이 필요하다.

이에 세대 연구의 선구자인 만하임(Mannheim)의 주장을 빌리고자 한다.[7] 만하임은 개인들이 청소년기(17-25세 경)에 발생한 특정한 역사적 ·

5) 한국사회 변동과 관련해서 세대를 구분한 연구가 여럿 존재하지만, 통일이나 남북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세대를 구분한 연구는 없었다.

6) 세대 정의 및 기존 연구에서의 세대구분에 대한 검토는 김병조 · 김수정 · 조성남, "군(軍)에 대한 인식격차 연구: 성별 · 세대별 차이를 중심으로,"『국방정책연구』 제29권 제4호(2013), pp.217~218.

7) K. Mannheim, "The Sociological Problem of Generations," Mannheim, K. ed.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New York: Routledge & Kegan. 1952). 청소년기

문화적 사건에 대한 경험을 공유할 경우 유사한 의식구조 및 행위양식을 보유하게 되며, 이를 통해 하나의 독립적인 세대 집단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즉, 청소년기에 경험한 역사를 기준으로 세대를 구분하는 것이다.

한국의 세대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해방 이후 한국 현대사에 등장했던 역사적 사건들을 기초로 세대를 설정하되, 만하임의 세대구분 논의를 받아들여 청소년기의 경험을 중시한다. 박재흥[8]은 식민지 경험과 한국전쟁 경험, 산업화와 정보화 경험, 그리고 사회운동 경험과 국내외 정치상황에 기초하여 세대를 전쟁체험/산업화 1세대, 민주화/산업화 2세대, 탈냉전/정보화세대로 구분하였으며, 홍덕률[9] 역시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동 과정이 산업화와 민주화, 정보화로 요약된다고 보고 세대를 산업화세대, 민주화세대, 정보화세대로 구분하였다. 함인희[10]는 그동안의 세대구분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의 세대를 근대화/산업화세대, 386/민주화세대, 정보화/디지털세대로 구분하였다. 학자별로 사용하는 세대의 명칭이 다르긴 하지만 이들은 공통적으로 한국전쟁이나 유신체제, IMF경제위기, 인터넷 발달로 인한 정보화 혁명 등,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사건들을 종합하여 세대를 구분하고 있다.

통일인식을 분석하는 이 글에서는 청소년기에 발생한 한국사회의 "결정적 집단경험(crucial group experience)"에 통일 및 남북관계와 관련된

경험을 기준으로 세대를 구분하는 것에 대해 여러 비판이 있을 수 있다. 특히 4~50년이라는 짧은 시기에 여러 번의 급격한 사회변동을 경험한 한국사회의 경우 청소년기 이외의 경험이 개인인식을 결정하는 데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세대를 구분하지 않는다면 모를까, 세대구분을 할 경우 택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지는 못하고 있다.

8) 박재흥, "세대개념에 관한 연구: 코호트적 시각에서," 『한국사회학』 제37권 제3호(2003), pp.1~24.

9) 홍덕률, "한국사회의 세대 연구," 『역사비평』 제64호(2003), pp.150~191.

10) 함인희, "세대분화와 세대충돌의 현주소," 한국정치학회 · 한국사회학회 편, 『한국사회의 새로운 갈등과 국민통합』(서울: 인간사랑, 2007), pp.241~272.

역사적 사건을 포함하여 통일세대를 구분해 보았다. 세대는 '체제경쟁세대', '민주민족통일세대', '탈냉전통일세대', '신자유주의통일세대' 등 총 4개로 구분되었다. 〈표 1〉은 세대명칭, 출생년도, 현재(2015년) 나이, 그리고 청소년기 한국사회의 주요 상황, 그리고 통일 및 남북관계 관련 역사경험 등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표 1〉 통일 및 남북관계와 세대 구분

세대 명칭	출생년도	현재(2015년) 나이(만)	청소년기 통일 · 남북관계 관련 역사경험
체제경쟁세대	1941~1960년	55-74세	반공국시, 무장공비, 1 · 21사태, 7 · 4남북공동선언, 유신체제, 베트남패망
민주민족통일세대	1961~1970년	45-54세	산업화, 민주화, 서울올림픽, 민족주의, 북한바로알기
탈냉전통일세대	1971~1980년	35-44세	구소련붕괴, 독일통일,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김일성 사망, 고난의 행군, 북한이탈주민발생, 금강산관광
신자유주의통일세대	1981~1995년	19-34세	외환위기, 남북정상회담, 북한이탈주민 일상화, 북한실상이해 심화, 남남갈등, 북한 핵개발, 천안함폭침 · 연평도포격

'체제경쟁세대'는 1960년대 이전에 출생한 집단으로 2015년 기준 55세 이상 연령층으로 구성된다. 이들이 청소년기에 경험한 대표적인 역사경험으로는 한국전쟁 복구, 5 · 16군사정변 후 반공을 국시로 하는 국가운영, 정부주도 산업화의 본격적인 추진 등이 있다. 또한 이들은 북한으로부터의 잦은 무장공비 침투와 1 · 21청와대 습격사건 등을 통일 및 남북관계 측면에서 경험한다. 1972년 7 · 4남북공동선언이 있었지만, 한국은 유신체제, 북한은 주석제도 채택 식으로 남북한 체제 대결이 지속되었다. 대외적으로는 공산화는 저지한다는 명분으로 국군을 파병하였지만

결국에는 월남이 망하고 베트남이 공산화 통일하는 것을 지켜보게 된다.

정부는 분단은 일시적이고 비극적인 현상으로, 통일은 한국 민족이 반드시 당연히 이루어야할 과제라고 자주 언급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정부 입장은 통일정책은 체제경쟁에서 이긴 이후에 추구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구체적인 통일정책이 제시되지는 못한 시기였다. 한편, 남북관계나 통일정책 역시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주도하고 국민은 그것을 따르면 된다고 보던 시기였기에, 이 세대는 청소년시기에 통일을 진지하게 고려하거나 구체적으로 통일방안을 생각하지는 않았다. 통일을 당연시하지만, 스스로 추진해본 경험이 없는 세대이다. 통일은 체제대립과 체제경쟁 이후의 과제로 남겨두고 체제경쟁을 우선시했던 세대라 할 수 있다.

'민주민족통일세대'는 60년대에 출생한 집단이다. 이들은 한국사회에서 산업화가 한창 진행되면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 청소년기를 지냈던 세대이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1980년 '서울의 봄'에서 시작하여 1987년 '6월 항쟁'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는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직접 참여하지 않았어도 최소한 민주화과정을 지켜본 세대이다. 그리고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통해 국력 면에서 한국이 북한보다 월등하게 강해졌음을 실감했고, 국내 민주화의 성공했던 그 기세로 북한 및 통일에 대한 관심을 크게 가졌던 세대이다. 이들이 1990년대 말 소위 말하는 '386'세대로 지칭되는 집단이 된다.[11] 민주민족통일세대는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경험하여 다른 세대 보다 진보적인 정치 사회의식과 태도를 갖고 있고, 국내 및 국제적으로 자본주의체제 운영에 대해서도 다소 비판적이다. 극단적으로 반미자

11) 30대, 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을 의미하는 '386'세대라는 용어는 1997년 1월 4일 조선일보 기사에 처음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화를 주장하는 집단은 소수였지만, 대체로 민족주의 정서를 강하게 갖고 있는 세대이다.

그리고 반정부투쟁을 통해 민주화를 달성하였기에,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감이 높은 편이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통일정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 세대와 달리 정부의 통일정책에 수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남북관계나 통일문제에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을 개진한다. 이들은 통일이 쉬운 과제가 아니지만, 쉽지 않은 민주화를 이룩한 만큼 통일도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추진하여 이루겠다고 생각하는 세대이다. 그러나 이 세대가 청소년기에 북한 실상을 실제로 보거나 북한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는 못했던 세대이다. 그런 점에서 통일이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 의욕이 앞선 세대라는 특징이 있다.

'탈냉전통일세대'는 70년대에 출생한 집단이다. 이들이 청소년기인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는 88올림픽 성공을 바탕으로 한국이 개발도상국을 벗어나 선진국으로 진입하려고 시도하던 시기이다. 경제적 발전이 지속되고 1987년 민주화이후 한국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로서의 기본 틀을 갖추기 시작한 시기였기에,[12] 정부정책에 대한 불만은 이전 세대보다 크게 줄어든 상태이다.

대신 이들은 국내보다 국제 환경변화를 크게 경험한 세대이다. 오래 지속될 것으로 생각되었던 사회주의 체제가 내부에서부터 흔들리고 짧은 시기에 무너진 시기이다. 이들 세대는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한반도 통일을 독일통일과 겹쳐서 상상했던 세대라 할 수 있다. 또한 탈냉전의 여세가 한반도에도 불어와 당시 노태우 정부는 1989년 9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표하고, 1990년 소련과 국교정상화, 1992

12)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는 1988년부터 한국사회를 자유국가(free country)로 구분하기 시작한다(www.freedomhouse.org).

년 중국과 수교를 하였으며, 남북한 간에도 1991년 말 남북기본합의서가 체결되는 등 남북관계가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하는 것을 경험한 세대이다.

이들은 또한 이전세대와 달리 청소년기에 북한을 실제로 경험한 세대가 많다는 특징이 있다. 1994년 김영삼 정부시기 계획된 남북정상이 북한 김일성의 사망으로 무산되어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못했지만, 김일성 사망이 북한내부의 큰 변화로 이어져 통일이 진전될 것을 기대하였던 세대이다. 기대와는 다른 방향이지만 북한이 크게 변한다. '고난의 행군' 전후로 김일성 사망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다수의 북한이탈주민이 발생하고 한국에 입국하는 것을 바라보는 한편, 금단의 땅인 북한에 '금강산 관광'을 다녀오는 것을 경험한 세대이다. 이들은 세계적인 탈냉전이 한반도 통일로 이어질 것을 기대했던 세대이다. 탈냉전이라는 큰 조류에 밀려 통일도 이루어질 것으로, 통일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하게 된 세대이다.

'신자유주의통일세대'는 80년대 이후 출생한 집단이다. 이들은 청소년시기 1997년 외환위기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지난 20년 이상 빠르게 성장하던 한국사회가 저성장으로 바뀌면서 대기업이 부도가 나고, 구조조정으로 실업이 증가하고, 가계가 흔들린다. 효율성과 경쟁이 강조되는 한편, 불황과 실업, 빈부격차 확대가 나타난다. 개인 간 경쟁이 심하고, 장래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은 사회이다.

이들은 이상과 같은 현상이 시장의 실패로 나타난 현상이지만, 동시에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고 또한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부정책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 이들은 개인이 사회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삶의 질이 결정된다고 보고, 개인 이익을 중심으로 세상을 인식하는 세대이다. 이들은 사회문제보다는 개인의 생존을 우선하고, '이익'을 중시한다.

이는 통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들 세대는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비교적 활발한 남북대화와 김대중 정부 시기에 분단이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지켜보았다. 그렇지만 남북대화나 남북정상회담이 실제 삶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세대이다. 이전 세대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새로운 현상이라면, 이들에게 북한이탈주민은 일상화된 현상이다. 그리고 직접 가보지는 못하여도 언론을 통해 북한 주민 생활의 실상을 보다 많이 알게 된다. 또한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13] 이 지속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통일을 추진하는 과정이 어렵고 심지어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더구나 북한은 남북정상회담과는 별개로 남북대치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1990년대 중반부터 '선군정치'를 내세우며 본격적으로 핵개발을 과시하고, 간헐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다. 그리고 천안함 폭침 · 연평도 포격 등 군사도발을 자행한다. 이에 이들 세대는 남북대립을 현실문제로 인식하게 되고, 북한이 한국사회에서의 삶을 보다 어렵게 하는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들은 미래의 통일보다 현재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고민한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경우가 많다. 그리고 통일을 고려하는 경우도 개인 이익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통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세대이다. 통일에 적대적인 북한, 통일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 통일이 초래할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서, 통일에 대해 유보적으로 생각하는 세대이다.

---

13) '남남갈등'이라는 용어는 1997년 8월 2일 한겨레신문에서 처음 등장하지만, 해당 용어가 크게 유행한 것은 2001년 7월 조선일보에서 사용하고 부터이다. 김재한, "북한 및 미국 관련 남남갈등의 변화추세: 조선일보 및 한겨레신문 사설 분석을 중심으로," 『통일과 평화』 제2호(2009), pp.140~161.

Ⅲ. 세대별 통일인식 격차

1. 통일필요성과 통일대박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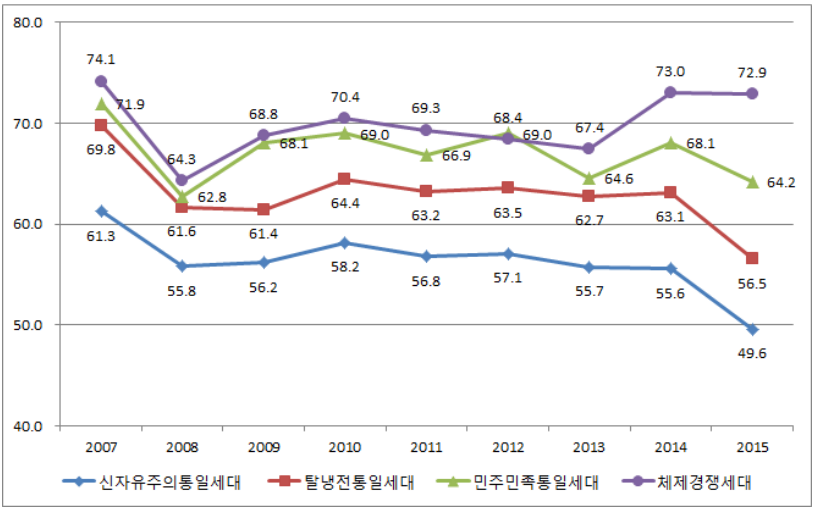
〈그림 1〉은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을 점수화하여 세대별로 제시한 것이다. 그림에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세대별 인식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체제경쟁세대가 통일의 필요성을 가장 강하게 인식하고, 신자유주의통일세대가 통일의 필요성을 가장 적게 느끼고 있다. 젊은 세대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낮다는 일반적인 인식이 대체로 정확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지난 8년간의 세대별 통일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추세를 통해 통일필요성에 대한 세대별 인식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추출할 수 있다. 첫째, 통일필요성에 대한 세대별 인식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대체로 '체제경쟁세대≒민주민족통일세대 〉 탈냉전통일세대 〉 신자유주의통일세대' 구분된다. 그렇지만 2014년부터 체제경쟁세대와 민주민족통일세대간에 통일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2015년 조사에서는 세대별 통일필요성에 대한 인식정도가 명확히 구분된다. 이는 박근혜 정부 '통일대박론'의 효과가 세대별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14] 체제경쟁세대는 통일정책에서 정부의 주도성을 안정하고 수용하는 측면이 강하다. 반대로 민주민족통일세대는 통일정책의 정부주도에 대해 크게 기대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그리고 탈냉전통일세대나 신자유주의통일세대가 통일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줄어들었는데, 국제환경 변화에 민감한 탈냉전통일세대의 경우 국내 통일정책변화가 통일에

14) 실제로는 통일대박론 뿐만 아니라, 지난 1년 동안의 남북관계 변화 등이 포함되어 변화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본 것이고, 신자유주의통일세대는 정부의 적극적인 통일정책 추진에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통일을 우려하는 인식이 드러났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 세대별 통일의 필요성(2007–2015)



비고: 응답별로 '매우 필요하다=100, 약간 필요하다=75, 반반/그저 그렇다=50, 별로 필요하지 않다=25, 전혀 필요하지 않다=0'과 같이 점수를 부여하고 평균값을 구한 것임.

둘째, 정권교체에 따른 남북관계 지향변화(2007-2008년)나 새로운 통일정책의 발표(2014년) 등이 통일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변화를 가져온다. 세대별 경험이 다르므로 통일필요성을 달리 평가하지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대북정책과 통일정책, 그리고 남북관계 변화 등이 통일필요성에 대한 인식변화에 영향을 미친다.[15]

셋째, 반대로 2009년에서 2013년까지 5년 동안은 통일 필요성에 대한 세대별 인식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이는 두 번째 특징과 연계된 것으

15) 이에 대해서는 이하의 2절과 3절 분석을 참조할 수 있다.

로 통일 환경이 크게 변하지 않으면 세대별로 갖고 있는 통일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점이다.

앞에서 통일대박론이 통일의 필요성 인식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에 구체적으로 통일대박론에 대한 세대별 공감도와 그 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 2〉는 통일대박론에 대한 공감정도를 세대별로 구분해서 제시한 것이다. 2014년의 경우 나이가 많은 세대일수록 통일대박론을 공감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젊은 세대에서는 비공감하는 비율이 높다. 그러나 체제경쟁세대를 제외하면 '보통'이라는 의견이 많다. 그리고 '공감'과 '비공감' 비율을 비교할 때, 신자유주의통일세대와 탈냉전통일세대는 비공감한다는 의견이 많고, 민주민족통일세대와 체제경쟁세대는 공감한다는 의견이 많다. 민주민족통일세대가 통일정책추진에 공감도가 높은 것은 이 세대가 기본적으로 통일지향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표 2〉 '통일대박론'에 대한 세대별 공감정도(2014–2015)

(단위: %)

	2014년				2015년			
	공감	보통	비공감	계	공감	보통	비공감	계
신자유주의통일세대	21.2	47.2	31.6	100.0	26.6	36.7	36.7	100.0
탈냉전통일세대	27.7	40.7	31.7	100.0	34.5	36.5	29.0	100.0
민주민족통일세대	35.6	37.6	26.7	100.0	34.3	39.1	26.6	100.0
체제경쟁세대	42.9	36.2	20.6	100.0	49.8	34.1	16.1	100.0

비고: '공감=매우 공감한다+약간 공감한다', '비공감=별로 공감하지 않는다+전혀 공감하지 않는다'를 합하였다.

2015년이 되면, 신자유주의통일세대와 탈냉전통일세대의 경우 '보통'이라는 의견이 줄면서 신자유주의통일세대는 비공감이 많아지고, 탈냉전통일세대는 공감이 많아지고 있다. 민주민족통일세대는 큰 변화가 없

고, 체제경쟁세대는 공감이 많아졌다. 변화 폭이 크지 않지만, 세대별로 통일대박론을 공감하는 비율이 변화하였다.

체제경쟁세대가 통일문제에 있어 정부 정책 변화에 쉽게 따르는 특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민주민족통일세대는 큰 변화가 없다. 민주민족통일세대는 정부정책에 비판적이라고 진단했었다. 통일대박론이 논의를 넘어서 실제 성과로 이어져야하는데,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데서, 보통이라는 의견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탈냉전통일세대는 통일환경 변화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세대인데, 통일대박론 관련 논의가 많이 진행되면서 통일대박론에 공감하는 층이 늘고 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통일세대는 공감 비율이 높아졌지만, 비공감 비율도 높아졌다. 신자유주의통일세대의 개인이 처한 입장에 따라 손익을 계산하고 그 결과 이해관계에 대한 인식에 따라 통일대박론에 대한 평가가 찬반으로 나누어지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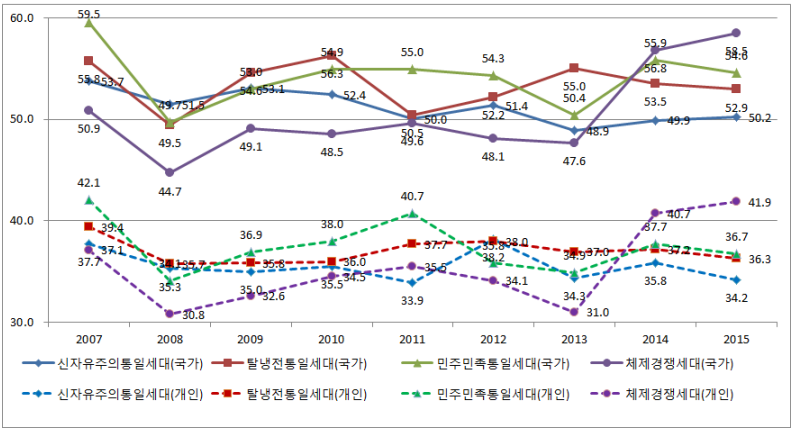
2. 통일대박론의 세대효과

통일대박론은 결국 통일이 국가 혹은 개인에 큰 이익을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통일과 이익 간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평가할 때, 통일대박론에 대한 공감도가 높아질 것이다. 〈그림 2〉는 세대별로 통일이 국가이익이 될 것인지, 개인이익이 될 것인지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조사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국가이익보다 개인이익이 적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면, 국가이익도 중요하지만 통일이 개인 삶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통일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나이가 많은 세대에서 컸지만(〈그림 1〉 참조), 통일이익(국가 및 개인)에 대한 평가는 그렇지 않았다. 통일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주장했던

체제경쟁세대는 2013년까지 통일이익에 대한 평가가 가장 낮은 세대였다. 대신, 민주민족통일세대나 탈냉전통일세대가 통일이익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 세대였다. 그러나 통일대박론이 발표된 2014년 이후 체제경쟁세대가 통일이익을 가장 크게 인식하게 되었다. 통일대박론이 체제경쟁세대에게 통일이익을 새삼 인식하게 하고, 통일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게 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이다. 역으로 통일이익과 관련해서 큰 변화가 없는 것이 신자유주의통일세대이다. 이들에게는 통일대박론 담론이 실질적으로 다가오지 못했고, 그 결과 통일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 세대별 통일과 국가이익, 개인이익(2007–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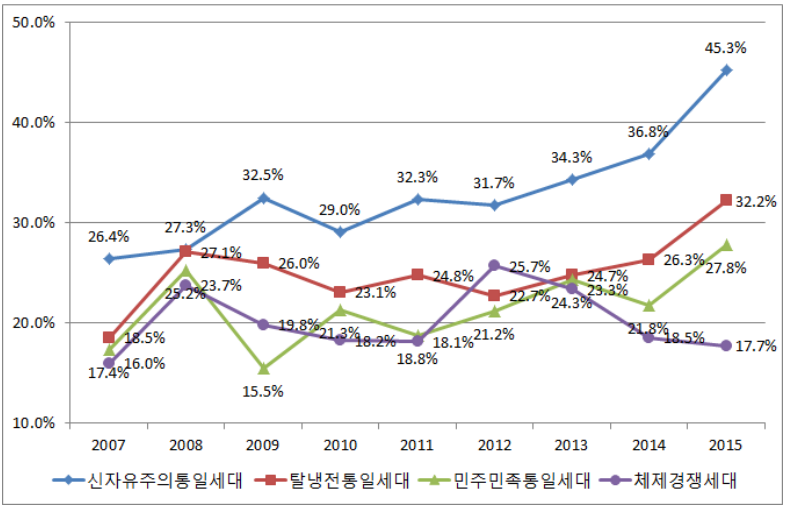
비고: 통일이익은 응답별로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100,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66.6,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33.3,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0'과 같이 점수를 부여하고 평균값을 구한 것임.

통일대박론의 효과가 세대별로 차이가 난다는 점은 통일에 대한 견해 변화에서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3〉은 통일에 대한 4가지 견해('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 '통일을 서두르기

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한다', '현재대로가 좋다',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중에서 '현재 만족(현재대로가 좋다)' 또는 '통일무관심(통일에 대한 관심이 없다)'을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을 세대별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체제경쟁세대는 '현재에 만족'하거나 '통일에 무관심'하다는 사람의 비율이 통일대박론 발표 이후 낮아진 유일한 집단이다. 나머지 3세대 중 '민주민족통일세대'와 '탈냉전통일세대'는 '현재 만족' 및 '통일무관심' 비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통일세대의 경우 '현재에 만족'하거나 '통일에 무관심'하다는 사람의 비율이 급속이 증가하여 40%를 넘고 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체제경쟁세대가 점차 줄어들 것을 고려하면 현 상태의 통일대박론이 대박을 터뜨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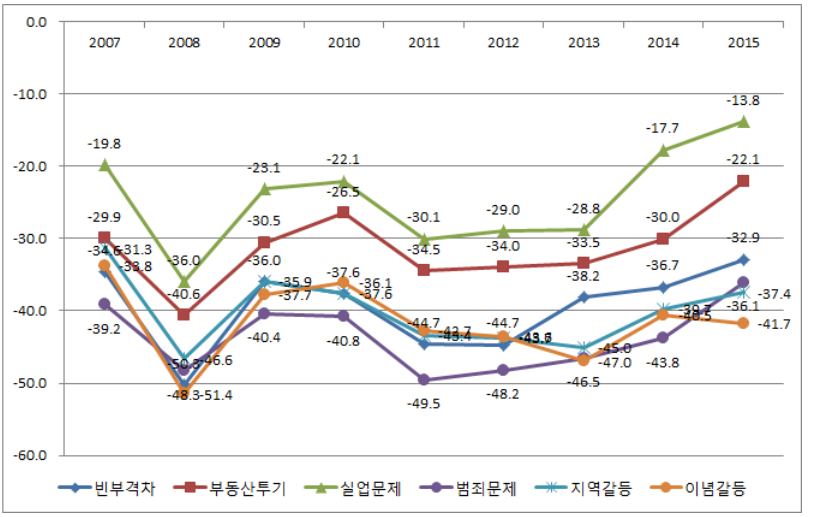
〈그림 3〉 세대별 '현재 만족+통일무관심' 변화 (2007–2015)



비고: '현재 만족+통일무관심'을 합한 %이다.

이처럼 현재에 만족하거나 통일에 무관심하게 되는 배경에는, 통일이 되면 제반 사회문제(빈부격차, 실업문제, 범죄문제, 이념갈등 등)가 악화될 것이라는 인식이 국민들 내부에 널리 퍼져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그림 4〉 참조).

〈그림 4〉 통일 후 사회문제의 변화 (2007–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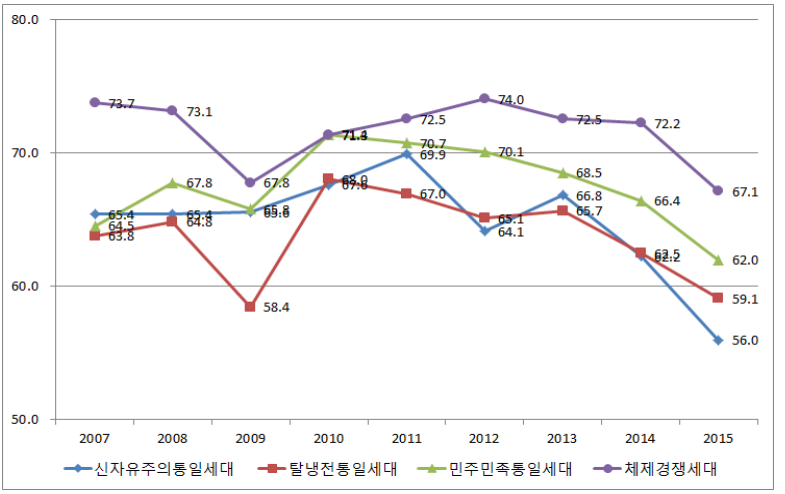
비고: 사회문제 변화는 응답별로 '크게 개선=100, 약간 개선=75, 차이 없음=50, 약간 악화=25, 매우악화=0'과 같이 점수를 부여하고 평균값을 구한 것임.

모든 사회문제의 악화를 예상하지만, 특히 범죄문제, 이념갈등, 지역갈등, 계층갈등 등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비록 통일대박론이 발표된 2013년 이후 사회문제가 악화되는 정도에 대한 평가가 다소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문제가 개선되기보다는 악화될 것이라고 보는 전망이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전환기에 이익추구보다 위험회피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통일대박론이 통일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창출하는 이익을 구체화

시키는 것과 함께 통일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문제에 대한 대비책 및 대응책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통일세대가 통일에 보다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일대박론이 통일이익을 구체화하고 통일이후의 사회문제 악화에 대비하는 것 이상의 정책이 되어야 한다. 〈그림 5〉에서 보듯이, 최근 들어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이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경제난에서 비롯된 3포 세대의 등장, 어처구니없이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건 등 한국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불만 증가가 신자유주의통일세대로 하여금 통일에 무관심하고 통일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지 않게 하는 근저 요인이 되고 있다고 추정된다. 통일대박론이 국민들에게 보다 큰 공감을 얻으려면 이익증진, 손해감소를 넘어 현재 한국이 처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킨다는 논의로 확장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5〉 세대별 '한국인 자긍심' 변화 (2007–2015)



비고: 한국인 자긍심은 응답별로 '매우 자랑스럽다=100, 다소 자랑스럽다=66.6,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33.3,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0'와 같이 점수를 부여하고 평균값을 구한 것임.

3. 북한에 대한 인식 변화와 세대효과

한편, 한국 정부가 추구하는 통일은 상대, 즉 북한과의 협력을 전제로 한 것이다. 한국이 추구하는 평화통일이 달성되려면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남과 북이 서로 적대시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아무리 통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해도 통일파트너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통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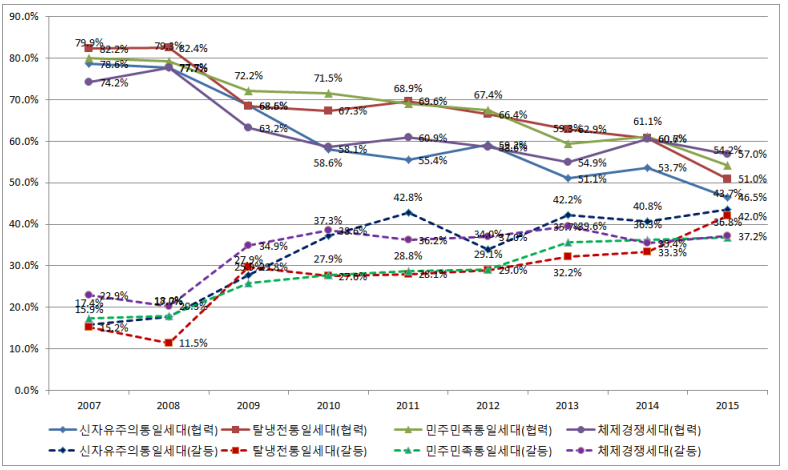
그런데 북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평화통일과 배치되는 방향으로 급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그림 6〉). 모든 세대에서 북한을 협력관계(지원+협력)로 보는 인식이 줄어들고 갈등관계(적대+경계)로 인식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2007년도에는 협력과 갈등이 80% : 20% 정도로 나뉘었던 북한에 대한 인식이 2015년도에는 50% : 40%정도로 바뀌었다. 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의 남북관계 경색을 반영한 것이다. 북한에 대한 인식이 바로 통일인식은 아니지만, 통일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확실하다. 국민들이 통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인식이 변화하려면 남북관계가 대결과 대치에서 공존과 협력으로 바뀌어야할 것이다.

그럼에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기의 차별적 경험이 여전히 대북인식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즉, 민주민족통일세대와 탈냉전통일세대가 체제경쟁세대나 신자유주의통일세대에 비해 북한을 협력관계로 보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체제경쟁세대나 신자유주의세대는 북한을 갈등관계로 보는 경우가 많다. 북한에 대한 인식은 최근에 경험한 남북관계에 큰 영향을 받지만, 세대효과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초점은 다르지만 북한에 대한 인식을 결정하는 데, 세대효과가 존재함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예가 있다. 〈그림 7〉은 '만약 월드컵에서 북한 팀과 미국 팀이 대결한다면 어느 편을 응원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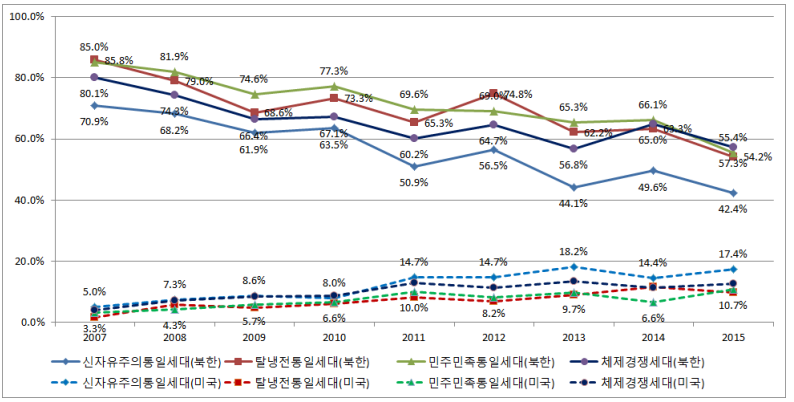
해 '북한 팀' 또는 '미국 팀'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세대별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그림 6〉 세대별 북한에 대한 인식 변화 (2007–2015)



비고: 응답자 10%미만인 '경쟁대상'은 제외하고 '협력=협력대상+지원대상'과 '갈등=경계대상+적대대상'으로 구분하였다.

〈그림 7〉 세대별 축구경기에서 응원하는 국가 (2007–2015)



비고: '양 팀 모두 응원하겠다', '어느 팀도 응원하지 않겠다', '기타'를 제외하고 북한 팀, 미국 팀을 명시한 응답 %를 제시하였다.

모든 세대에서 북한을 응원하겠다는 사람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미국을 응원하겠다는 사람의 비율이 조금씩 늘고 있다. 2007-8년에는 세대별로 70~80% 정도 북한을 응원하였으나 2014-5년에는 그 비율이 40~60%정도가 되었다. 반대로 미국을 응원하겠다는 사람의 비율이 2007년에는 모든 세대에서 5%이하였으나, 2015년에는 모든 세대에서 10%가 넘게 되었다. 이는 북한에 대한 인식변화와 궤를 같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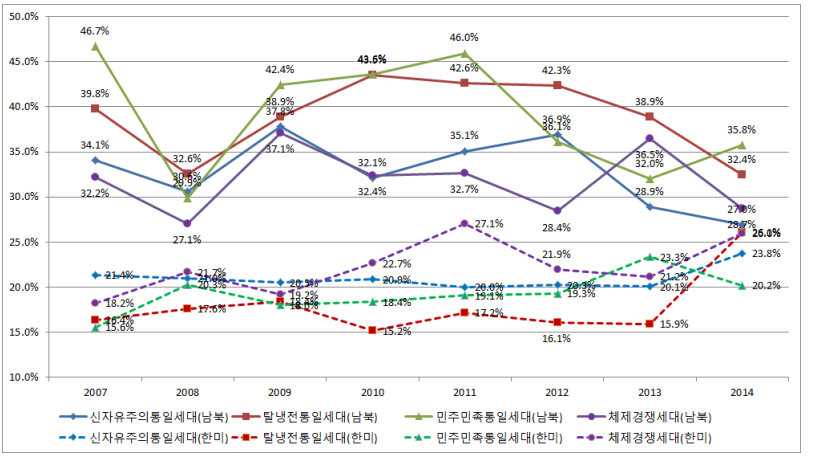
그러나 세대별로 살펴보면 미국을 응원하는 비율은 신자유주의통일세대에서 많고, 민주민족통일세대나 '탈냉전통일세대에서 적다. 반대로 북한을 응원하는 비율은 역으로 신자유주의통일세대에서 가장 낮다. 비정치, 비군사적 측면에서는 세대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림 8〉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공조'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세대별로 구분해서 제시한 것이다. 전체적인 흐름은 남북관계 개선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줄어들고, 한미공조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하지만 세대별로 살펴보면, 체제경쟁세대가 한미관계를 보다 중시하고, 탈냉전통일세대와 민주민족통일세대가 남북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경향이다. 그러나 축구경기에서 응원하는 국가와 비교했을 때, 세대효과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정치군사적 측면에서의 대북 인식은 청소년기에 형성된 세대효과보다 조사 당시의 남북관계 현실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듯하다. 그 결과 다른 세대보다 북한을 통일파트너로 인정하고 가깝게 느껴왔던 민주민족통일세대와 탈냉전통일세대가 남북관계 악화가 지속되면서, 통일파트너로 북한을 고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식이 변하고 있다. 남북관계 악화가 통일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거나 통일을 보다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통일의식이 확대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판단해볼 수 있다.

청소년기에 어떤 경험을 하였느냐에 따라 세대별로 다른 통일인식이 형성되며, 이 점이 세대별 통일인식 격차로 나타난다. 그러나 청소년기 형성된 통일인식이 고정되어 있다고 보는 것도 곤란하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통일인식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통일정책의 내용과 현재의 남북관계에 따라 통일인식이 변하게 됨을 말해준다.

〈그림 8〉 세대별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공조'의 중요성 (2007–2014)



비고: '똑같이 중요하다'를 제외하고 '남북관계 개선(남북)'과 '한미공조(한미)'를 선택한 %를 제시하였다.

Ⅳ. 세대내 통일인식의 분화

1. 통일의식 유형의 세대별 분포

다양한 측면에서 세대별로 통일인식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

러나 최근의 남북관계가 모든 세대의 통일인식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역시 확인되었다. 이는 같은 세대지만 각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통일인식이 다르게 나타나는 분화현상이 있음을 의미한다. 예컨대, 신자유주의통일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낮고, 현재에 만족하거나 통일에 무관심한 비율이 높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다른 세대와 비교해서 나타난 상대적인 것이며, 또한 신자유주의 통일세대가 모두 그런 특성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세대내 통일인식은 어느 정도 분화되어 있는가? 세대 내에 통일의식의 차이가 존재하고, 세대내 통일의식의 차이가 통일인식 분화로 이어짐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하려면 먼저 통일의식 유형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통일의식 유형은 통일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통일에 대한 입장을 교차하여 통일추진형, 통일소극형, 통일방임형 등 3가지로 구분하였다(〈표 3〉).

(1) 통일추진형 :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가능한 빨리 통일이 되거나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한다고 생각하는 유형
(2) 통일소극형 : 통일의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리거나(Ⅰ), 통일이 필요하나 관심이 없고 현재에 만족하는 유형(Ⅱ)[16]
(3) 통일방임형 :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통일에 관심이 없고 현재에 만족하는 유형

16) 통일소극형(Ⅱ)는 매우 소수이다. 통일에 대한 입장은 통일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의해 좌우되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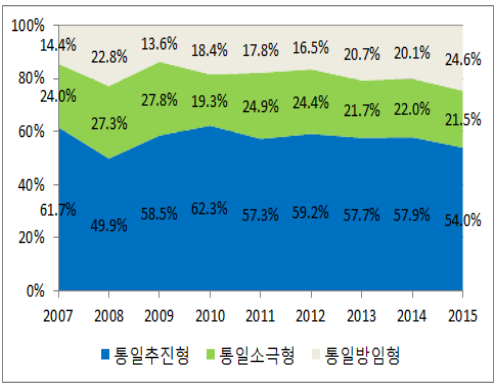
〈표 3〉 통일의식 유형

		통일필요성	
		필요하다	반반/그저 그렇다 필요하지 않다
통일에 대한 입장	빨리 통일/ 여건성숙	통일추진형	통일소극형(Ⅰ)
	현재대로가 낫다/ 통일무관심	통일소극형(Ⅱ)	통일방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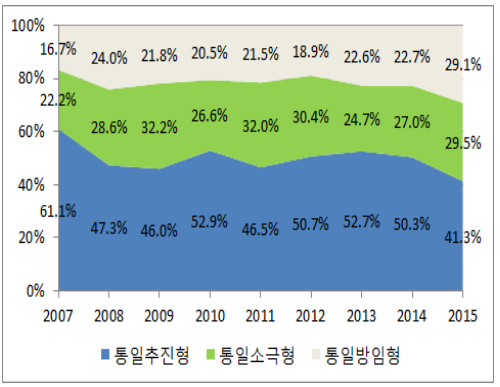
〈그림 9〉는 세대별로 통일의식 유형의 분포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제시한 것이다. 신자유주의통일세대에서는 통일방임형이 증가하고 있음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2007년 23.2%였던 통일방임형이 2015년도에는 43.4%가 된다. 반대로 통일추진형은 49.1%에서 28.9%로 줄어든다. 그리고 통일소극형의 비중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 결과 2015년에는 통일방임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탈냉전통일세대에서도 통일방임형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통일추진형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민주민족통일세대와 체제경쟁세대는 통일유형별로 큰 변화 없이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민족통일세대는 2015년 통일추진형이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54.0%로 다수이며, 체제경쟁세대는 2015년에 통일추진형이 오히려 조금 늘어 66.9%이다. 세대별로 통일의식 유형의 구성비도 다르고, 구성비의 변화양태도 다르지만 세대내 통일의식의 분화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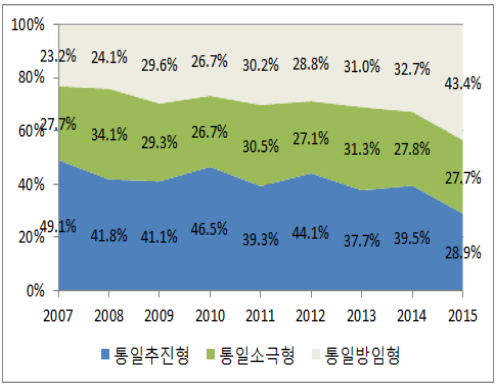
〈그림 9〉 세대별 통일의식 유형 변화추세 (2007–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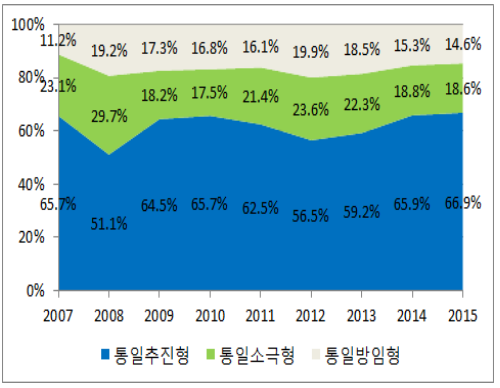
〈 민주민족통일세대 〉



〈 탈냉전통일세대 〉



〈 신자유주의통일세대 〉



〈 체제경쟁세대 〉

이어서 세대별로 어떤 변수에 의해 통일유형이 구분되는지 2015년을 사례로 해서 살펴보기로 한다(〈표 4〉~〈표 7〉). 〈표 4〉는 신자유주의통일세대의 통일의식 유형 분포를 변수별로 구분해서 제시한 것이다. x^2 검증을 통해 볼 때, 신자유주의통일세대는 성, 교육수준, 소득수준별로 통일의식에 분화가 나타나고, 이념지향별로는 통일의식 분화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분화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

보다 통일에 대한 태도에서 양극적인 특성을 보이고,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통일에 보다 적극적이며,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수준이 낮은 층에서 통일추진형이 많고, 소득수준이 높은 층에서 통일방임층이 많다.

〈표 5〉는 탈냉전통일세대의 통일의식 유형 분포를 변수별로 구분해서 제시한 것이다. x^2 검증을 통해 신자유주의통일세대는 이념지향별로 통일의식에 분화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17] 탈냉전통일세대에서는 진보와 중도적 이념성향을 가진 집단이 보수적인 이념성향보다 통일추진형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표 4〉 신자유주의통일세대의 통일유형 분포(2015년)

		통일추진형	통일소극형	통일방임형	계
성별 x^2=6.922 p〈0.05	남	29.9%	21.3%	48.8%	100.0%
	녀	27.6%	34.2%	38.2%	100.0%
교육수준 x^2=7.623 p〈0.05	고졸이하	16.1%	38.7%	45.2%	100.0%
	대학이상	31.8%	25.1%	43.1%	100.0%
소득수준 x^2=14.872 p〈0.05	200만미만	38.5%	30.8%	30.8%	100.0%
	200-299만	31.7%	43.3%	25.0%	100.0%
	300-399만	30.7%	24.0%	45.3%	100.0%
	400만이상	26.0%	23.7%	50.3%	100.0%
이념지향 x^2=1.522 p=n.s.	진보	31.0%	29.0%	40.0%	100.0%
	중도	26.8%	27.4%	45.8%	100.0%
	보수	34.2%	26.3%	39.5%	100.0%
전체		28.9%	27.7%	43.4%	100.0%

17) 세대별로 통일의식 유형과 관련되는 변수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여기서 세대별로 각 변수가 갖는 의미나 중요성이 다르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 원인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시도하지 못하였다.

〈표 5〉 탈냉전통일세대의 통일유형 분포(2015년)

		통일추진형	통일소극형	통일방임형	계
성별 x^2=3.595 p=n.s.	남	46.7%	26.7%	26.7%	100.0%
	녀	35.0%	33.3%	31.7%	100.0%
교육수준 x^2=0.941 p=n.s.	고졸이하	41.9%	32.3%	25.8%	100.0%
	대학이상	41.0%	28.0%	31.1%	100.0%
소득수준 x^2=5.198 p=n.s	200만미만	50.0%	33.3%	16.7%	100.0%
	200-299만	53.7%	24.4%	22.0%	100.0%
	300-399만	38.7%	34.0%	27.4%	100.0%
	400만이상	38.0%	28.0%	34.0%	100.0%
이념지향 x^2=8.480 p〈0.1	진보	47.3%	24.3%	28.4%	100.0%
	중도	42.8%	31.0%	26.2%	100.0%
	보수	20.6%	35.3%	44.1%	100.0%
전체		41.3%	29.5%	29.1%	100.0%

〈표 6〉은 민주민족통일세대의 변수별 통일유형 분포이다. x 2 검증을 통해볼 때, 민주민족통일세대의 경우 소득수준 별로 통일의식이 분화됨을 알 수 있다.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통일방임형이 늘어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체제경쟁세대의 경우, x^2 검증을 통해볼 때, 성별 및 소득수준 별로 통일에 분화가 나타난다(〈표 7〉). 남성에서 통일추진형이 많고, 여성은 통일소극형이 많다. 또한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통일방임형이 많다.

〈표 6〉 민주민족통일세대의 통일유형 분포(2015년)

		통일추진형	통일소극형	통일방임형	계
성별 χ^2=1.260 p=n.s.	남	57.5%	19.4%	23.1%	100.0%
	녀	51.0%	23.2%	25.8%	100.0%
교육수준 χ^2=1.655 p=n.s.	고졸이하	51.7%	21.7%	26.7%	100.0%
	대학이상	57.8%	22.0%	20.2%	100.0%
소득수준 χ^2=12.512 p〈0.1	200만미만	55.6%	22.2%	22.2%	100.0%
	200-299만	62.1%	27.6%	10.3%	100.0%
	300-399만	63.5%	17.3%	19.2%	100.0%
	400만이상	44.6%	23.7%	31.7%	100.0%
이념지향 χ^2=3.909 p=n.s.	진보	63.8%	17.2%	19.0%	100.0%
	중도	53.0%	23.5%	23.5%	100.0%
	보수	50.0%	20.0%	30.0%	100.0%
전체		54.0%	21.5%	24.6%	100.0%

〈표 7〉 체제경쟁세대의 통일유형 분포(2015년)

		통일추진형	통일소극형	통일방임형	계
성별 χ^2=5.976 p〈0.05	남	72.7%	13.9%	13.3%	100.0%
	녀	60.8%	23.4%	15.8%	100.0%
교육수준 χ^2=1.412 p=n.s.	고졸이하	65.8%	19.1%	15.1%	100.0%
	대학이상	73.3%	17.8%	8.9%	100.0%
소득수준 χ^2=12.802 p〈0.05	200만미만	74.1%	13.6%	12.3%	100.0%
	200-299만	59.7%	29.9%	10.4%	100.0%
	300-399만	71.4%	16.9%	11.7%	100.0%
	400만이상	62.9%	15.5%	21.6%	100.0%
이념지향 χ^2=2.000 p=n.s.	진보	64.7%	17.6%	17.6%	100.0%
	중도	71.1%	17.5%	11.4%	100.0%
	보수	64.3%	19.7%	15.9%	100.0%
전체		66.9%	18.6%	14.6%	100.0%

세대별로 구분해서 변수별로 통일의식유형의 분화를 살펴보았다. 각 세대를 비교하면 세대별로 통일의식 분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동일하지 않고 다르다는 점이 주목된다. 성별 변수는 나이가 많은 체제경쟁세대와 나이가 적은 신자유주의통일세대의 통일의식 유형 분화와 관련되었다. 그러나 성별변수의 효과는 두 세대에서 다른 방향으로 나타났는데, 체제경쟁세대에서는 여성이 남성과 비교해서 통일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지만, 신자유주의통일세대에서는 남성 내부에서 통일의식이 양극화되는 현상으로 작용하였다. 교육수준은 신자유주의통일세대의 통일의식 유형 분화에 변수로 작용하였다. 소득수준은 신자유주의통일세대, 민주민족통일세대, 체제경쟁세대의 통일의식 유형 분화에 변수로 작용하였다.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통일추진형이 많고,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통일방임형이 많아진다.[18] 그리고 이념성향은 탈냉전통일세대의 통일의식 유형 분화와 관계가 있었다.[19]

2. 통일의식 유형별 북한인식 및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

세대별로 통일의식 유형별 분포가 다르고, 통일의식 유형 분화와 관련되는 변수도 세대별로 달랐다. 세대별 분화가 존재하고 분화양상도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러나 세대 내에서 북한인식 및 대북정책에 대

18) 탈냉전통일세대의 경우 통계적 유의성 면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통일의식 유형 분화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탈냉전세대의 경우에도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통일추진형이 많고,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통일방임형이 많다(〈표 5〉 참조). 소득수준 변수는 모든 세대의 통일의식 유형 분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보인다.

19) 통계적 유의성은 낮았지만, 이념지향변수는 민주민족통일세대의 통일의식 분화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표 6〉참조).

해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함을 밝혀야 세대내 통일인식의 분화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표 8〉은 북한에 대한 인식을 세대별, 통일의식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세대별로 통일의식 유형별로 북한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다름을 알 수 있다. 세대 내에 북한에 대한 인식이 분화되어 나타난다는 점이다. 물론 세대별로 세대 내에 나타나는 분화의 정도는 다르다.

〈표 8〉 통일의식 유형별 북한에 대한 인식 (2015년)

(단위:%)

	신자유주의 통일세대			탈냉전통일세대			민주민족통일세대			체제경쟁세대		
	추진	소극	방임	추진	소극	방임	추진	소극	방임	추진	소극	방임
지원	9.8	23.6	7.2	17.1	14.7	12.2	18.7	11.3	11.4	32.9	8.2	14.9
협력	59.8	24.7	22.5	52.4	26.7	21.6	53.5	27.4	17.1	36.1	27.9	12.8
경쟁	5.4	14.6	9.4	5.7	13.3	4.1	8.4	12.9	7.1	3.7	9.8	10.6
경계	10.9	25.8	31.2	17.1	28.0	33.8	8.4	29.0	45.7	16.7	34.4	27.7
적대	14.1	11.2	29.7	7.6	17.3	28.4	11.0	19.4	18.6	10.6	19.7	34.0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그러나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경우와 지원 대상으로 보는 경우를 합치고, 경계 대상으로 보는 경우와 적대 대상으로 보는 경우를 합치면, 북한에 대한 인식이 세대에 관계없이 유사한 비중으로 세대 내에서 분화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즉, 세대에 관계없이 통일추진형은 70%내외가 북한을 협력(협력+지원)대상으로 생각한다. 한편 통일소극형은 북한을 협력(협력+지원)대상으로 보는 의견과 갈등(경계+적대)대상으로 보는 의견이 반반정도이다. 그리고 통일방임형은 북한을 갈등(경계+적대) 대상으로 보는 의견이 50%을 넘는다.

통일인식에 있어서의 세대 간 차이와 세대내 분화가 어떤 형태로 나타

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통일의식 유형별로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 제시하였다(〈표 9〉). 점수 차이를 비교했을 때, 대북지원이 북한주민 생활에 도움을 주었는지, 남북경협이 북한 개혁개방에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한 의견은, 전체로 비교한 세대 간 차이보다 세대내 통일의식 유형별 차이가 더 크다.[20] 한편,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도은 반대로 세대 간 차이가 세내내 통일의식 유형별 차이보다 크다.[21]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 평가는 세대내 분화 현상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상의 결과로 부터 구체적인 통일인식에서는 세대 내 분화현상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다소 추상적인 통일인식에서는 세대 간 차이가 강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20) '대북지원 주민생활 도움 효과'를 예로 제시하면, 세대 간 최대 차이는 6.3점(체제경쟁세대-신자유주의통일세대)인데, 세대내 차이는 신자유주의통일세대 6.8점(통일추진형-통일방임형), 탈냉전통일세대 15.4점(통일추진형-통일방임형), 민주민족통일세대 11.8점(통일추진형-통일방임형), 체제경쟁세대 18.2점(통일추진형-통일방임형)으로 세대 간 차이보다 세대내 분화가 더 크게 나타난다.

21) '정부대북정책만족'의 경우, 세대 간 최대 차이는 8.6점(체제경쟁세대-신자유주의통일세대)인데, 세대내 차이는 탈냉전통일세대에서 가장 큰데 6.1점(통일소득형-통일방임형)으로 세대내 분화보다 세대간 차이가 더 크다.

〈표 9〉 통일의식 유형별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2015년)

		대북지원 주민생활 도움효과	남북경협 개혁개방에 도움효과	정부대북 정책만족
신자유주의통일세대	통일추진형	48.3	55.7	44.3
	통일소극형	46.3	47.3	44.6
	통일방임형	41.5	46.8	43.9
	전체	44.8	49.5	44.2
탈냉전통일세대	통일추진형	52.0	61.8	48.9
	통일소극형	49.7	53.7	52.2
	통일방임형	36.6	48.6	46.1
	전체	46.8	55.6	49.1
민주민족통일세대	통일추진형	51.5	58.8	49.2
	통일소극형	39.7	50.0	48.8
	통일방임형	40.5	47.1	47.5
	전체	46.3	54.1	48.7
체제경쟁세대	통일추진형	56.3	60.6	53.5
	통일소극형	38.1	48.0	51.6
	통일방임형	43.5	46.7	48.8
	전체	51.1	56.2	52.5

비고: '대북지원 주민생활 도움 효과' 및 '남북경제협력 개혁개방에 도움 효과'는 '매우 도움이 된다=100, 약간 도움이 된다=66.6,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33.3,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0'으로, '대북정책만족도'는 '매우 만족=100, 다소 만족=66.6, 다소 불만족=33.3, 매우 불만족=0'과 같이 점수를 부여하고 평균을 구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추론이 맞는지 다른 예를 통해 확인해 보기로 한다. 〈표 10〉은 세대별로 구분하여 통일의식 유형별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질문이므로 세대 격차보다 세대내 분화가 더 클 것이 예상된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의견은 세대 간 차이보다 세대 내 통일의식 유형별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난다. 세대에 관계없이 통일추진형이 북한이탈주민을 보다 친

근하게 생각하고, 북한이탈주민이 남북한 이질화 해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탈북자에 대한 지원 확대의견으로 이어진다. 반대로 통일방임형은 모든 분야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

〈표 10〉 통일의식 유형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의견 (2015년)

		탈북자 친근감	남북한 이질화 해소	탈북자지원 확대
신자유주의 통일세대	통일추진형	51.5	58.9	54.1
	통일소극형	46.8	53.9	54.4
	통일방임형	41.4	47.5	43.1
	전체	45.8	52.6	49.4
탈냉전통일세대	통일추진형	54.1	62.9	56.9
	통일소극형	44.9	55.3	53.0
	통일방임형	40.0	50.0	40.7
	전체	47.2	56.9	51.0
민주민족통일세대	통일추진형	52.5	57.6	57.1
	통일소극형	50.3	54.2	52.4
	통일방임형	46.5	47.8	41.6
	전체	50.5	54.5	52.3
체제경쟁세대	통일추진형	53.3	58.6	52.9
	통일소극형	46.8	50.3	48.4
	통일방임형	45.0	45.5	43.8
	전체	50.9	55.2	50.7

비고: 탈북자 친근감은 응답별로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100,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66.6, 별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33.3,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0'과 같이 점수를 부여하고, 북한이탈주민 남북한 이질화 해소 및 탈북자 지원 확대는 '매우 동의함=100, 다소 동의함=66.6, 별로 동의하지 않음=33.3, 전혀 동의하지 않음=0/을 부여하여 평균값을 구한 것임.

Ⅴ. 맺음말

세대별로 통일인식에 차이가 존재한다. 특히 신자유주의통일세대에서 점점 통일필요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통일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비롯하여 모든 통일 관련 인식이 청소년기에 경험한 남북관계 및 통일관련 사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세대 탓으로 돌리면 곤란하다는 점이다.

세대별 통일인식은 세대별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기 이후에 경험하는 남북관계 및 통일관련 사건에 의해 변화하게 된다. 세대효과가 존재하지만, 정부가 통일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통일정책을 추진하는지에 따라 통일에 대한 국민인식도 변할 수 있다. 정부가 적극적인 통일정책을 추구할 때 통일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분명 증가한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론은 통일필요성은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고, 부분적으로 효과도 존재한다. 그러나 세대별로 효과에 차이가 있었다. 체제경쟁세대에게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는 데는 그 효과가 컸다. 그러나 전 세대에 걸쳐 통일필요성을 제고시키지는 못하였다. 통일대박론이 대박이 되려면 각 세대에 맞는 보다 구체적인 이익창출 방안이 제시되어야한다. 아울러 통일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담겨져야 하며, 통일을 통해 한국사회 전반이 재도약할 수 있다는 논의가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분석결과 세대효과가 존재하지만, 남북관계의 변화가 통일인식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최근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 변화, 특히 신자유주의통일세대의 통일에 대한 관심저하는 통일인식의 세대격차에 더하여, 계속되는 북한의 적대적인 대남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통일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려면 남북관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세대별로 통일인식에 차이가 있지만, 세대별 격차만을 강조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해석이다. 세대 내에 통일인식의 분화가 존재한다. 이에 통일의식을 통일추진형, 통일소극형, 통일방임형으로 구분해서 세대 내에 존재하는 통일인식의 분화를 제시하였다. 또한 분석과정에서 세대별로 성, 교육수준, 소득수준, 정치성향 등의 변수가 세대 내 통일의식 분화에 다르게 작용함도 발견하게 되었고, 통일의식 유형에 따라 세대 내에서 북한인식 및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한국인의 통일인식은 세대별 격차 현상과 세대내 분화가 혼재해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인식 및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을 분석한 결과, 구체적인 수준의 통일인식에서는 세대내 분화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추상적인 통일인식에서는 세대별 격차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 접수: 2015년 9월 15일 / 심사: 2015년 9월 18일 / 게재확정: 2015년 10월 22일

【참고문헌】

국문 단행본

박명규 외.『2015 통일의식조사』. 서울: 통일평화연구원. 2015(근간).

박재흥. "세대계승과 갈등: 사회문화적 변동맥락에서." 한국사회학회 편.『대한민국 60년의 사회변동』. 서울: 인간사랑, 2009.

함인희. "세대분화와 세대충돌의 현주소." 한국정치학회 · 한국사회학회(편저).『한국사회의 새로운 갈등과 국민통합』. 서울: 인간사랑, 2007.

국문 논문

김병조 · 김수정 · 조성남. "군(軍)에 대한 인식격차 연구: 성별 · 세대별 차이를 중심으로."『국방정책연구』 제29권 제4호(2013).

김재한. "북한 및 미국 관련 남남갈등의 변화추세: 조선일보 및 한겨레신문 사설 분석을 중심으로."『통일과 평화』 제2호(2009).

박재흥. "세대개념에 관한 연구: 코호트적 시각에서."『한국사회학』 제37권 제3호(2003).

홍덕률. "한국사회의 세대 연구."『역사비평』 제64호(2003).

영문 단행본

Mannheim, K. "The Sociological Problem of Generations." Mannheim, K. ed.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New York: Routledge & Kegan, 1952.

Korean Perception to the Unification during 2007~2015: Focused on Generation Gap and Intra-Generation Differentiation

Kim, Byeong Jo (KNDU)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generation gap in the perception on the unification. Following Mannheim's argument, I attempted to demarcate generation according to critical domestic and inter-Korean experiences in the adolescents period. As a result, the author classified generations as follows: system competition generation, democratic-nationalistic unification generation, post-Cold war unification generation, neoliberal unification generation.

In the analysis, I found that there are gaps in the unification perception among the generations. And President Park Gunhae's unification policy, which was declared in the 2013, has had differential effects to each generation. And the subsequent analysis showed that the unification perception is influenced not only generational differences but also unification policy and inter-Korean relations. So, the author proposed, to enhance national unification perception, it is necessary that government unification policy should be tailored according to each generation and inter-Korean relations are to be improved.

But to consider each generation as a unitary group leads over-simplification of the real world. Intra-generation differentiation should be examined. The analyses revealed that there are intra-generation differentiation according to the type of unification consciousness. In reality, generation gap and intra-generational differentiation are mixed in the Korean unification perception. The generation gap remains apparently in the abstract level of unification perception and the intra-generation differentiation can be found clearly in the concrete level.

Key words: unification perception, generation gap, intra-generation differentiation.

김병조(Kim, Byeong Jo)

서울대학교에서 사회학박사를 취득하였고, 현재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관심은 한국의 군대와 사회, 국민안보의식, 북한사회, 통일의식 등이며, 최근 논문으로는 “군(軍)에 대한 인식격차연구(공저),” “민군관계” 등이 있다.